

린 미얀마 뉴스레터

Lin Myanmar Newsletter — 미얀마 정치·경제·비즈니스 위클리 브리핑

제30호 (Issue No. 30)

2026년 9월 9일 (수)

발행: 법무법인(유) 린 미얀마사무소

GNLM 주요 뉴스 6선 (2026.9.9)

외교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 캄보디아 국빈 방문 예정

양곤 · Naypyitaw

노로돔 시하모니 캄보디아 국왕의 초청으로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이 조만간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한다. 방문 기간 중 캄보디아 상원의장(권한대행 국가원수), 훈 마넷 총리, 국회의장과 각각 회담을 갖고 주요 유적지도 방문할 예정이다. 양국은 정부·의회·국민 차원의 우호관계 강화와 경제·문화 등 다방면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인권·외교

미얀마 정부, "이른바 IIMM"에 대한 입장 표명...법적 정당성 정면 반박

외교부(MoFA) 성명 · 제네바 인권이사회 63차 회기

외교부는 9월 7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HRC) 63차 회기 중 이른바 '미얀마 독립조사메커니즘(IIMM)' 보고서 관련 대화에 대응해, IIMM을 설립 초기부터 인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성명은 IIMM이 2018년 HRC 결의 39/2에 근거해 설립됐으나, HRC는 유엔총회 결의(A/RES/60/251)에 따라 보고서 취합 권한만 가질 뿐 특정 국가에 대한 조사기구를 설립할 법적 권한이 없어 이 자체가 유엔헌장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IIMM이 자체 재량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재정 투명성에 문제가 있고, 8차 연례보고서 역시 검증되지 않은 반군·야권 정보에 기반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린 법무법인 코멘트 — 유엔 인권메커니즘에 대한 정부의 공식 불인정 입장은 향후 국제 소송·제재 대응 실무에서 참고할 배경 사실관계로 의미가 있습니다.

GNU·KNLA·PDF, 카마몽-파푼 도로 통제권 상실…군, 5월 이후 56회 교전 끝에 회복

카인주

정부군은 GNU(카렌민족연합)·KNLA·PDF 연합세력이 일시 장악했던 카마몽-파푼 도로에 대한 안보·지역통제 작전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당국에 따르면 해당 세력은 도로를 따라 공격과 지뢰 매설을 벌여 물자·의료·교육 공급을 방해했으며, 정부군은 지난 5월 5일 작전 개시 이후 56회의 교전을 거쳐 임시 기지 11곳, 총기 15정, FPV 드론 24대, 지뢰 등 243점을 노획하고 9월 7일 흐빨론지 마을을 최종 탈환했다. 6월 예뿌교와 마일40교 복구에 이어 8월 24일 까닌돈교도 재개통돼 해당 구간 통행이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미얀마, 8월 한 달간 쌀 14만 8,548톤 수출…48개사 참여

미얀마 쌀연맹(MRF) 집계

고급 백미 12만 1,058톤, 파보일드 라이스 4,773톤, 브로큰라이스(B등급) 1만 7,872톤 등을 포함해 8월 한 달간 총 14만 8,548톤의 쌀·싸라기가 수출됐다. 2026-2027 회계연도 첫 5개월 누적 수출량은 84만 8,278톤, 수출액은 2억 9,100만 달러에 달한다. 최대 수입국은 필리핀(8월 10만 6,512톤)이며, 중국·벨기에·폴란드·불가리아·스페인·네덜란드·체코·미국·리투아니아 등에도 수출됐다. 다만 8월 수출량은 전년 동월(19만 톤) 대비 4만 1,000톤 줄었으나, 4~8월 누적 기준으로는 작년 동기를 상회했다.

온라인 스캠·사기 연루 외국인 12명 강제추방

카인주 · 미얀마-태국 우정의다리 2호

에티오피아인 4명, 케냐인 3명, 우간다인 3명, 르완다인 2명 등 총 12명이 통신사기와 관련 범죄에 연루돼 미얀마-태국 우정의다리 2호를 통해 강제추방됐다. 당국은 원활한 송환을 위해 필요한 법적 서류를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했으며, 인접국과의 협력을 통해 온라인 스캠·온라인 도박에 대한 단속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류가 2주 연속 동결...옥탄92 3,710짖·경유 4,240짖

석유수입·저장·유통 감독위원회

9월 10일까지 적용되는 이번 주 유류 상한가는 옥탄92 3,710짖, 옥탄95 3,815짖, 경유 4,240짖, 프리미엄 경유 5,140짖으로 2주 연속 동결됐다. 국내 유가는 동남아 정유제품 가격 기준인 싱가포르 플랫츠(MOPS) 지수에 연동되며, 미얀마는 석유의 90%를 수입에 의존한다. 당국은 주유소의 상한가 초과 판매를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등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와 달리 미얀마는 국제가 대비 합리적 가격 유지를 위해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닛케이아시아 발췌 2선 · NIKKEI ASIA

외교·아세안

베트남의 실용주의 노선...ASEAN 이견 속 민 아웅 흘라잉 환대

Nikkei Asia · 2026.9.7 (방콕발)

닛케이아시아는 베트남이 이번 주말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을 맞이한 것을 두고, 미얀마 문제 대응을 놓고 분열된 아세안(ASEAN) 내에서 하노이가 갈수록 실용주의적 노선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짚었다. 하노이는 미얀마와의 대화 채널을 아세안을 통해 계속 유지하면서도, 교역과 안보 협력은 별도로 실리적으로 추진하는 이중 접근을 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세안 회원국들이 군정과의 관여 수위를 놓고 여전히 합의 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나온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출처: Nikkei Asia, "Vietnam's pragmatic path toward Myanmar on display in Min Aung Hlaing visit" (2026.9.7)

정부군, 中 프로젝트 지역 탈환 작전 강화...라카인·짜욱푸 회랑 민간인 대거 피란

Nikkei Asia · 2026.9.8 (응아빠 발)

닛케이아시아는 라카인주 산악지대의 한 고속도로가 짙은 안개 속에 인적이 끊긴 모습을 전하며, 정부군이 중국 윈난성에서 미얀마 짜욱푸(Kyaukphyu) 인도양 항구로 이어지는 송유관·경제회랑 인근 지역을 되찾기 위한 작전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회랑은 중국이 벨트앤로드 구상의 핵심으로 추진해 온 짜욱푸 심해항·경제특구·송유관 프로젝트가 위치한 지역으로, 아라칸군(AA) 등 저항세력과의 교전이 이어지며 라카인주와 마그웨이 지역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피란해 실향민 캠프의 학교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Nikkei Asia, "Myanmar military intensifies operations to retake China project areas" (2026.9.8)

미얀마 홍수 피해 업데이트

몬순 다소 약화로 홍수 소강 국면…응아운강·이라와디강은 여전히 높은 수위 유지

2026년 9월 8~9일 기준

기상수문국(DMH)이 9월 8일 저녁 발령한 '중대 호우경보 제70호'에 따르면, 안다만해·벵골만의 중~강 몬순과 강한 대류운 발달로 9월 9일부터 12일까지 네피도·양곤·만달레이·바고·마그웨이·사가잉·이라와디·타닌타리 지역과 까친·까야·까인·친·몬·라카인·샨주 전역에 광범위한 비 또는 뇌우가 예상되며, 특히 만달레이·마그웨이·사가잉·타닌타리·까친·까인·몬 지역에는 국지적 폭우 가능성이 있다. 다만 GNLM이 앞서 전한 기상 분석(Meteoblue ICON 모델·태국 기상청 기준)에 따르면 9월 3일부터 몬순 자체는 전반적으로 약화 추세로, 9월 6일 이후 이라와디·양곤·바고·마그웨이·만달레이·사가잉 하류 지역의 강우량과 빈도가 감소하면서 바고강·응가모예익 개울·시똥강 유입량도 줄어 도심·저지대 침수 상황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사가잉 상류에서 내려오는 방류량 영향으로 응아운강·이라와디강 수위는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감소 속도도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뉴스레터(제28·29호)에서 전해드린 대로 바고 시내 익사 사고, 이라와디 지역 6개 타운십 침수 등 피해가 이어져 온 만큼, 이번 주 예보된 추가 강우가 저지대·하천변 지역의 위험을 다시 키울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출처: 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9.9, Heavy Rainfall Warning No.70), GNLM "Floods May Ease as Rains Recede"(9.4 보도), DMH 종합

미얀마 수입금지 정책과 수입 가능 분야

외화 부족에 따른 수입 통제 지속…필수재·기계류는 여전히 허용

종합 분석

미얀마는 2021년 쿠데타 이후 만성적인 외화 부족에 대응해 수입 품목의 75% 이상에 대해 상무부(MOC) 수입허가를 의무화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2026년 7월 6일 시행된 재무세입부 신규 '수출입 컴플라이언스 절차'(고시 115/2026호)는 기존 2017·2023·2025·2026년 3월 고시를 통합해 품목별 처벌 수위를 세분화했다.

구분	대표 품목	비고
완전 금지	맥주, 담배, 전자담배(베이프, 2026.8 고시 8호), 마약류, 위조지폐·위조상표품, 무기·탄약, 골동품, 야생동물·멸종위기종 관련 제품, 트럼프카드, 불상·파고다 문양 사용 제품	무허가 반입 시 압류 (몰수)
사실상 제한	내연기관(휘발유·경유) 신규 승용차, 상용차·트레일러 무허가 반입분	2022년부터 ICE 승용차 신규 수입 사실상 중단, 위반시 압류
고위험군 (허가시 수입 가능)	연료류, 건축자재, 통신장비, 프리미엄 가전·전자제품	허가 있으면 수입 가능, 없으면 고액 벌금
우선 허용 품목 (Priority A)	기계·부품, 농기계·농기구, 비료·농약, 고수확 종자, 식용유, 산업용 원자재, 건설자재	허가 절차 간소, 무허가시에도 벌금만 부과 (압류 제외)
의약품·필수재	의약품, 의약품 원료, 종자, 농업기계	수입허가 면제 품목 다수 포함, 위반시에도 금전적 벌금 수준
전기차 (BEV) 파 일럿	2025~2026년식 승용 전기차, 2022~2026년식 상용트럭·밴, 2017~2026년식 소방차·구급차·기계장비(좌핸들 한정)	노후차 교환(Old Vehicle Exchange) 허가 취득 시 수입 가능

정리하면 ①의약품·의약품 원료, ②비료·농약·고수확종자 등 농업 투입재, ③농기계·산업기계 및 부품, ④식용유·산업용 원자재, ⑤건설자재, ⑥좌핸들 전기차(승용 2025~2026년식, 상용 2022~2026년식) 등은 여전히 정상적인 허가 절차를 통해 수입이 가능한 분야다. 반면 내연기관 신규 승용차, 맥주·담배·전자담배, 사치성 소비재, 무허가 상용차·트레일러 등은 사실상 수입이 봉쇄돼 있다. 모든 수입허가 신청은 2026년 1월부터 전자시스템 'TradeNet 2.0'을 통해서만 접수되며, 동일 HS코드 품목은 월 1건으로 신청이 제한된다.

린 법무법인 코멘트 — 한국 기업이 미얀마로 수출을 검토할 경우, 의약품·농업투입재·산업기계·건설자재 등 우선허용(Priority A) 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HS코드 기준으로 확인하고, 완성차·가전 등은 별도 허가 및 전기차 여부에 따라 통관 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환율 동향

원화 강세 지속, 코스피 7,000선 목전…미얀마 찻화는 추가 약세

2026년 9월 8일 기준

지표	수치	비고
원/달러 환율	1,345.6원	9.8 증가, 전일(1,340.5원) 대비 소폭 반등
코스피 지수	6,954.52 (+0.58%)	9.8 증가, 전일 급등(+4.61%)에 이은 추가 상승
미얀마 찻 참고환율(USD)	K3,663.50~3,670.00	9.8 미얀마 정부 발표 시장 참고환율
미얀마 찻(위안화, CNY)	K558.20~558.70	9.8 기준
미얀마 찻(태국 바트, THB)	K125.50~125.70	9.8 기준
미얀마 찻(인도 루피, INR)	K43.60	9.8 기준

9월 8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45.6원에 마감해 전날 23개월 만의 최저치(1,340.5원)에서 소폭 반등했다. 코스피는 전날 4.61% 급등에 이어 이날도 0.58% 추가 상승한 6,954.52에 마감하며 7,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AI·반도체 관련 기대감이 여전히 지수 상승을 뒷받침하는 모습이다.

미얀마 찻화는 9월 8일 발표된 시장 참고환율 기준 달러당 3,663.5~3,670찻으로, 지난 주(제29호에서 전해드린 암시장환율 약 3,100찻 안팎) 대비 추가로 큰 폭 절하됐다. 위안화·바트화·루피화 대비 환율도 각각 558.2~558.7찻, 125.5~125.7찻, 43.6찻 수준을 나타냈다. 같은 날 미얀마 외환시장 거래대금은 달러 기준 631만 달러, 위안화 기준 3,068만 위안, 바트화 기준 2,822만 바트 규모였다. 공식 고시환율(약 2,093.7찻, 제29호 참조)과 시장 참고환율 간 괴리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 현지 진출 기업은 결제 기준환율 선택에 따른 손익 차이를 실무적으로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YSX 8개 상장사 전일 종가 및 시가총액 (2026.9.8 기준)

Yangon Stock Exchange, Main Board

종목명(코드)	종가(껏)	전일 대비	시가총액(껁만 껏)
First Myanmar Investment (FMI)	18,000	보합	595,975
Myanmar Thilawa SEZ Holdings (MTSH)	8,900	+100 (+1.14%)	346,469
Myanmar Citizens Bank (MCB)	13,000	+500 (+4.00%)	135,213
First Private Bank (FPB)	7,000	-100 (-1.41%)	218,013
TMH Telecom (TMH)	3,500	+100 (+2.94%)	44,881
Ever Flow River Group (EFR)	1,850	보합	36,958
Amata Holding (AMATA)	4,300	보합	45,140
Myanmar Agro Exchange (MAEX)	6,700	보합	159,493
합계 (8개사)			1,582,142

9월 8일 YSX 8개 상장사 전체 거래량은 10,292주, 거래대금은 약 6,173만 껏을 기록했다. 은행주인 MCB가 +4.00%로 가장 큰 폭 상승했고 TMH(+2.94%), MTSH(+1.14%)도 동반 상승한 반면, FPB는 -1.41% 하락했다. 8개사 합산 시가총액은 약 1조 5,821억 껏으로 전일(1조 5,749억 껏) 대비 소폭 증가했다. FMI는 외국인 지분율(13.45%)이 매수한도(12.6%)를 초과해 9월 9일에도 매수 주문이 계속 정지된 상태이며, MCB는 외국인 투자가 전면 배제된다.

출처: Yangon Stock Exchange 공식 웹사이트 Stock trading data(2026.9.8~9.9 조회)

법률·세무 상담 안내

미얀마 현지 법률·세무 상담은 전화 **09449191234** 또는 카카오톡 아이디 **benice4u**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한국 내 소송 관련 업무는 **법무법인(유) 린 서울**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린 미얀마사무소 — 양곤, 미얀마 | www.myanmarlaw.net

상담문의: 09449191234 · 카카오톡 benice4u | 본 뉴스레터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